2013 년 9 월 22 일 – 주일 메시지

전도자의 삶 – 죽어야 산다 (갈 2:20)

[서론]

아브라함의 인생을 새롭게 바꾼 3 가지 전환점이 있습니다.

– 그 사건의 내용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떠나라/보내라/바치라)

(1) 떠나라

① 무엇을 떠나라는 말 입니까?
–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창 12:1)
– 갈대야 우르를 떠나라는 말입니다.

②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 태어나서 75 년을 살아온 땅입니다. 부모 친척 모든 재산이 있는 땅입니다.

③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떠나라 했을까요?
– 아브라함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갈대아 우르는 완전 우상 동네입니다.)

(2) 보내라

① 이스마엘을 내어 보내라는 말입니다.

② 아브라함의 유일한 혈육이요 피붙이입니다.

③ 그런데 왜 보내라 했을까요?
– 이스마엘은 불신앙을 통해서 얻은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한 자녀가 아닙니다.

(3) 바치라

①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말입니다.

② 독자 이삭을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그 어느 누구보다도 소중한 존재입니다. 자기 생명보다도 더 소중한 존재 입니다. 어떻게 해서 얻은 아들입니까!

③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시험 하셨다고 했습니다.
–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 하는 줄 알았노라" (창 22:12)

(4)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에 참으로 어려운 요구가 주어졌습니다.
– 떠나라, 보내라, 바치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요구를 하셨을까요?

①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입니다.

②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입니다.

[본론]

1. 이렇듯, 성경에 보면, 역설적인 내용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 아브라함의 경우처럼 좀처럼 이해 되지 않는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 "누가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내어 주라"
– 요즘 세상에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내가 한방을 더 치면 쳤지 맞고 있을 사람이 있을까요? 억울해서 안됩니다.

(2) “누가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라”

(3) 낮아지고자 하는 사람은 높아지고, 높아지자고하는 사람은 낮아집니다.

(4)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습니다.

(5) 원수도 사랑합시다.

(6) 심지어 오늘 본문 “갈 2:20”에 보면 죽어야 산다고 했습니다.
-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7)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했습니다. (고전 15:31)

2.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절대로 죽지 않으려고 합니다.
- 남편도 죽지 않습니다. 아내도 죽지 않습니다. 시어머니도, 며느리도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교회안에서도 서로 죽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1) 억울 하다는 것입니다.
- 왜 나만 손해 봐야 하냐는 것입니다.

(2) 한국에 있을 때 이혼직전에 잇는 부부들에게 권면을 한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부부가 서로가 주장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 “목사님! 나는 억울합니다.” 절대로 양보를 못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3) 지금 우리들의 삶속에도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3.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1)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향해서 비웃고 조롱하고, 야유를 보냈습니다.

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 십자가 위에서 당장 내려 오라고 했습니다.
- 우리들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② 그런데 주님께서는 끝까지 내려 오시지 않았습니다. 죽음으로 모든 뜻을 이루셨습니다.

③ 여기에 참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 백부장이 하는 말이, “그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결론]

(1) 여러분의 가정, 우리 교회가 평안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 “내가 죽으면 됩니다.”

(2) 그런데 우리는 아무도 죽지 않으려고 합니다.
- 왜 나만 손해 봐야 하냐는 것입니다.

(3) 하지만 참된 복음은 내가 죽는 것입니다.
여기에 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